

“최고참’ 책임감 안고 팀 발전 헌신”

광주FC 안영규 ‘팀에 녹아드는 한해’ 2025 시즌 새로운 각오 다져

철저한 자기 관리, 지난해보다 더 많이 팀에 기여하고 싶어... 나부터 변화...함께 진화하는 광주만의 축구로 팬 성원 보답



광주FC의 안영규가 3년 연속 맡아왔던 주장 완장을 이민기에 물려줬다. 주장이 아닌 보통의 선수로 새 시즌을 준비하고 있지만 안영규의 책임감은 여전하다.

팀의 최고참인 안영규는 오는 7월에는 둘째 아이를 만나게 된다. 또 지난 시즌 부상으로 많은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미안함을 가지고 있는 만큼 2025시즌도 책임감이 무거운 한 해가 될 전망이다. 안영규는 지난 시즌에 대해 “팀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주장을 맡으면서 팀에 모범이 더 돼야 하는데 부상으로 합류가 늦었고, 팀에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생각에 자신한테도 화가 많이 났다”고 소회를 밝혔다. 올 시즌에는 다시 케도에 올라서겠다고 밝힌 안영규는 “감독님 축구에 잘 맞춰서 따라가야 한다는 게 첫 번째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이해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다”며 “기존에 잘했던 부분은 계속 가져가면서 새로운 걸 또 도전하고, 거기에 맞춰서 잘해 나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런 부분을 빨리 받아들이고 또 나도 바뀌려고 해야 한다”고 전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지난 시즌을 평가한다면

-팀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너무 부족했다.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동계 훈련을 하면서부터 부상이 있어서 시작부터 좋지 않았고 그 여파가 시즌 중에도 있었다.

▲아쉬움은 있지만 광주가 아시아챔피언스리그에서 기대 이상의 성적을 냈다

-재밌게 했던 것 같다. 다른 나라에서 우리를 모르고 있지 않았나 그래서 처음에는 상대가 대비 안 하고 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다른 팀들이 우리한테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지난 시즌 빼앗긴 일정에 선수들 몸이 따라주지 않는 모습들도 보였는데

-선수들도 잘하고 싶은 마음이 컸고 경기를 이기고 싶은 마음이 컸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일정을 거의 다 처음 소화해 봤을 것 같다. 이제 한 번 해봤으니까 올해는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팀적으로도 그렇고 선수들이 많이 느꼈을 것 같다. 그래서 첫 번째가 부상을 안 당해야 한다. 체력적인 부분이나 모든 부분을 안 당해야 하는 그런 한 해가 되면 좋겠다.

▲팀의 유일한 ‘80년대’ 선수가 됐다

-어쩌다 보니 팀의 최고참을 맡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담감, 책임감도 더 생기는 것 같고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 팀에서는 내가 최고참이지만 다른 팀에 형들이 있기 때문에 그 형들을 본보기 삼아야 할 것 같다.

▲나이와 상관없이 올 시즌에도 발전하고 보여주고 싶은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감독님 축구에 잘 맞춰서 또 따라가야 된다는 게 첫 번째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축구가 발전된 부분이 있을 것이다. 그 부분을 잘 이해하고 또 따라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다. 기존에 했던 잘했던 부분은 계속 가져가면서 새로운 걸 또 도전하고, 거기에 맞춰서 내가 또 잘해 나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런 부분을 빨리 받아들이고 또 나도 바뀌려고 해야 된다.



광주FC 최고참 안영규가 태국 전지훈련지에서 2025시즌 새로운 각오를 다지고 있다. <광주FC 제공>

▲선수단 변화가 있기 때문에 호흡을 맞추는 부분도 중요할 것 같은데

-새로운 선수들이 우리 팀 색깔에 빨리 적응하고 축구에 대해서도 이해를 빨리할 수 있도록 조언도 해주고 많이 도와줘야 할 것 같다. 기존에 있는 선수들도 더 발전해야 한다. 잘했던 부분을 계속 유지하면서 팀이 더 발전할 수 있게 모든 선수들이 같이 노력하는 부분이 컸으면 좋겠다. 작년에 아쉬웠던 리그 순위를 끌어올리고, 더 잘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선수가 잘 준비하고 있다.

▲개막을 기다리는 팬들에게 한마디

-이제 곧 있으면 시즌 시작한다. 경기장에 들어갔을 때 좋은 경기력과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선수들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 추운 날씨에 시작하게 되는데 많이 찾아와 주셔서 응원해 주신다면 힘을 받아서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을 것이다. 많이 응원해 주시면 거기에 보답할 수 있는 경기력 보여드리겠다. /박희중 기자



준비된 KIA, ‘V13’ 시동

코칭 스태프 전략 세미나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가 KBO 리그 통합 우승 2연패를 위한 준비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KIA는 지난 16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대회의실에서 코칭 스태프 전략 세미나를 개최하며, 새로운 시즌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와 계획을 수립했다. (사진)

이번 세미나의 핵심 화두는 단연 ‘2년 연속 통합 우승’이었다.

이는 KIA 타이거즈의 명가 재건을 넘어 왕조 시대를 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는 대목이다. 이를 위해 전력 분석 파트는 최근 10년간 리그에서 2년 연속 통합 우승 팀이 없었던 요인을 분석하고 올 시즌 구단이 보완해야 할 점에 대해 제시했다.

또한 ▲각 파트별 지난 시즌 리뷰 및 올 시즌 목표 설정 ▲활발한 소통을 위한 1군·퓨처스 코칭 스태프 미팅 월례화 ▲선수 별 체계적인 루틴 확립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범호 감독은 “선수단과 프런트가 한마음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24시즌 통합우승이라고 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었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이제 해는 바뀌었고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25시즌을 준비해야 한다”며 “지난해 역전승이 가장 많은 팀이었다는 것을 잊고 역전패가 5번째로 많았던 팀이었다는 것을 기억해 주기를 바라며, 스프링 캠프 때부터 철저히 준비하기를 당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준영 대표이사는 “지난해 팀의 통합 우승에는 전략 세미나가 분명히 밑거름이 됐다고 생각한다. 우승이라고 하는 추상적인 목표가 아닌 파트별로 구체적인 수치를 설정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에 우승이라는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며 “올해에는 파트별로 더욱 준비를 잘 해준 것 같고 고맙게 생각하며, 디펜딩 챔피언이 아닌 도전자의 마음가짐으로 시즌을 준비해 주길 바란다. 프런트도 변화 없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주홍철 기자

김석주 목포대 명예교수 광주시배구협회장 당선

김석주 목포대학교 명예교수가 광주시배구협회장에 당선됐다.

광주시배구협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7일 통합 4대 광주시배구협회장 선거에 단독 후보로 등록한 김석주 후보에 대한 임원 적격 심사를 한 뒤 투표 없이 당선인으로 확정해 당선증을 교부했다.

김석주 당선인은 “배구인들의 역량을 결집해 배구인재를 적극 육성하는 등 광주배구 위상 제고와 광주체육발전에 앞장서겠다”며 “청소년들이 배구를 통해 꿈을 펼칠 수 있는 토대를 더욱 튼튼히 하고,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이 소통과 화합으로 하나되는 광주배구협회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석주 당선인은 70여년동안 배구와 함께 해온 체육계 원로다. 고교시절부터 대학때까지 전국체전 전남대표로 참가하고, 대학 졸업 후에는 대학에서 지도자와 교수(조선대·목포대)로 재임하며 후학들을 양성하는 등 한 배



통합 4대 광주시배구협회장에 당선된 김석주 목포대 명예교수가 당선소감을 밝히고 있다.

구인으로서 한 길을 걸어온 광주·전남 체육계의 살아있는 역사다.

조선대 체육학과를 졸업한 김 당선인은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석사학위를 받았다. 조선대 체육대학 부교수, 조선대 체육대학 교무과장, 목포대 체육학과 교수, 목포대 교수평의회 회장, 조선대 총동창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박희중 기자

광주체중 김준서 ‘金’·광주체고 남지현 ‘銀’



제38회 전국실내양궁대회에서 금메달을 수확한 김준서(왼쪽)와 은메달을 따낸 남지현 <광주시양궁협회 제공>

제38회 전국실내양궁대회

광주체육중 김준서가 제38회 전국실내양궁대회에서 금메달을 수확했다.

김준서는 지난 17일 화성특례시 동안 실내배드민턴장에서 열린 대회 남자중등부(U-15) 개인전 결승에서 서의진(원천중)을 세트 스코어 7대1로 꺾고 정상에 올랐다.

한국양궁지도자협회가 주최한 이번 대회는 18m 올림픽라운드 16강 토너먼트로 치러졌다.

김준서는 16강전에서 김시은(관악중)을 6-2, 8강전에서 이주완(원천중)을 6-2, 준결승전에서 유희제(원천중)를 6-0로 꺾고 결승에 진출했다.

여자고등부(U-18)에서는 광주체고 남지현이 은메달을 따냈다.

16강전에서 김하나(예천여고)를 6-2로 제압한 남지현은 8강에서 김소민(여강고)을 6-4, 4강에서 김지원(서울체고)을 6-4로 꺾고 결승에 진출했으나 김예원(여강고)에게 0-6으로 패해 은메달에 그쳤다.

남지현은 지난해 열린 제38회 종별선수권대회 30m 금메달, 70m 은메달을 비롯해 제42회 대통령기 전국양궁선수권대회 50m 금메달, 60m 동메달, 개인전 동메달에 이어 제51회 중등연맹대회 30m 은메달, 제105회 전국체육대회 30m 은메달 등 각종 전국대회에서 수상하며 ‘도쿄올림픽 3관왕’ 안산을 잇는 광주 여자양궁 기대주로 주목받고 있다. /박희중 기자

안세영, 인도오픈도 제패 새해 들어 2주 연속 우승

결승서 초추위에 2대0 완승...김혜정-공희용, 女複 준우승

배드민턴 간판 안세영(삼성생명)이 여자 세계랭킹 1위급에 새해 들어 치른 두 차례 국제대회를 모두 제패했다. 안세영은 19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750 인도오픈 여자 단식 결승전에서 포르투아 초추위(태국·세계랭킹 12위)를 2-0(21-12 21-9)으로 물리쳤다.

지난 12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끝난 월드투어 슈퍼 1000 말레이시아오픈에서 올해 첫 우승을 차지한 안세영은 2주 연속으로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1게임을 21-12로 압도한 안세영은 2게임에서도 특유의 철벽수비로 15-6까지 격차를 벌리면서 일찌감치 승기를 잡았다.

특히 9-18로 뒤진 상황에서 마지막 힘을 짜낸 초추위의 날카로운 공격을 모두 맞아온 끝에 범실을 유도해내며 추격의지를 꺾었다.

남자 복식의 서승재-김원호(이상 삼성생명)도 전날 에런 차아-소우익(말레이시아)을 2-0(22-20 21-19)으로 따돌리고 결승에 오른 상태다.

약 6년 만에 호흡을 맞춘 말레이시아 오픈에서 우승을 합작했던 서승재-김



여자 배드민턴 세계랭킹 1위 안세영 지난 12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의 부지 잘릴 아시아타아레나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1000 말레이시아 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왕즈이(2위·중국)를 꺾고 세리머니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원호도 2개 대회 연속 우승 기회를 잡았다.

한편 여자 복식의 김혜정(삼성생명)과 공희용(전북은행)도 결승까지

울랐으나 일본의 이가라시 아리사-사쿠라모토 아야코에 0-2(15-21 13-21)로 패해 은메달을 수확했다.

/연합뉴스

박종규 광주당구연맹 회장, 연임 성공

“침체된 지역 당구계 활력”

박종규(사진) 광주시당구연맹 회장이 연임에 성공했다.

광주당구연맹은 19일 “제4대 회장 선거에 단독 후보로 무투표 당선된 박종규 현 회장의 연임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2022년 8월 보궐선거로 제3대 광주당구연맹 회장에 당선돼 연맹을 이끌어 온 박종규 회장은 그동안 침체된 지역 당구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행보를 이어왔다.

박 회장은 연맹 행정시스템의 정상화, 회장배 등 대회의 정례화, 선수단 경쟁력 확대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지난해 ‘박종규 회장배’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낸 박 회장은 전국대회 입



상자 포상금과 선수단 해외 전지훈련 파견 지원 등 선수단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았다.

또 70명의 대규모 이사진 체제를 구성해 연회비와 대회 후원금 기부, 재능기부 등으로 연맹 행정에 일조했다.

박종규 회장은 “그동안 광주당구연맹 시스템 정상화를 위해 저를 비롯한 연맹 임원진과 선수단 등이 최선을 다했다. 그 결과 여러 부분들이 개선돼 뿌듯하다”며 “앞으로 4년의 임기 동안에도 광주연맹을 위해 헌신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박희중 기자